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경제 혁신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6. 7. 25.(월) 12:00
배포일시	2016. 7. 25.(월) 09:00
담당부서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담당자	과장: 이재원(042-481-3720) 사무관: 정남수(042-481-3735)



통계청

2015 Census 인구주택총조사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결과



통계청이 작성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결과”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일 러 두 기

□ 본 자료는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기준 시점(2015년 11월 1일 0시 현재)을 기준으로 2016.3.14.~25. 기간 중 통계청에서 만 100세 이상 고령자 가구를 방문하여 고령자 또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집계한 결과임

○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제외하였음

○ 만 100세 이상 여부는 가구에서 응답한 나이를 기준으로 아래의 보조질문*을 활용하여 판단한 것으로 주민등록 상 등재된 나이와는 다를 수 있음

* 실제 나이 판단을 위한 보조질문

- 세는 나이, 띠, 실제 생년월일(양·음력),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 첫째 자녀 연령과 첫째 자녀 출산 시 고령자 연령
- 막내 자녀 연령과 막내 자녀 출산 시 고령자 연령
- 고령자의 형제자매 수와 순위·손아래의 형제자매 연령
- 초혼 연령, 사별 연령, 해방 당시 고령자 연령 등

□ 복수 응답한 항목의 경우 구성비는 응답자(3,159명)에 대한 단순 비율로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음

○ 또한 표내의 합계는 반올림 등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목 차

□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결과 요약	1
-------------------------------	---

□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결과

1. 100세 이상 고령자 현황

가. 규 모	5
--------------	---

나. 분 포	6
--------------	---

2. 100세 이상 고령자 특성

가. 주거 형태	8
----------------	---

나. 고령자 및 가족에 관한 사항	10
--------------------------	----

다. 건강 상태	15
----------------	----

라. 생활 습관	21
----------------	----

마. 기 타	25
--------------	----

◇ 부 록

◎ 조사 개요	28
---------------	----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결과 요약

2015년 11월 1일 기준 100세 이상 인구는 3,159명, 인구 10만 명당 6.6명

○ 100세 이상 고령자는 3,159명으로 2010년 1,835명에 비해 1,324명(72.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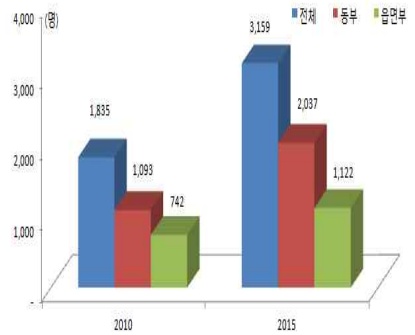
-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는 6.6명으로 2010년 3.8명에 비해 2.8명 증가

* 95세 이상 고령자 중 생존률 : 16.6%(2005→2010)
18.5%(2010→2015)

○ 동(洞) 지역에 2,037명(64.5%)이 거주하고, 읍면(邑面) 지역에 1,122명(35.5%)이 거주함

○ 고령자를 성별로 보면 여자 2,731명(86.5%), 남자 428명(13.5%)임

< 100세 이상 고령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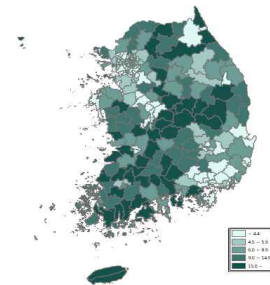
시도별 100세 이상 고령자는 경기(701명)가 가장 많고, 인구 10만 명당으로는 제주(17.2명)가 가장 많음

○ 시도별 100세 이상 고령자는 경기(701명), 서울(515명), 경북(225명) 순임

- 인구 10만 명당 고령자는 제주(17.2명), 전남(12.3명), 충북(9.5명) 순임

- 시군구별 인구 10만 명당 고령자는 충북 괴산군(42.1명), 경북 문경시(33.9명), 전남 장성군(31.1명), 충남 서천군(31.0명), 강원 양양군(28.5명) 순임

< 시군구별 인구 10만 명당 고령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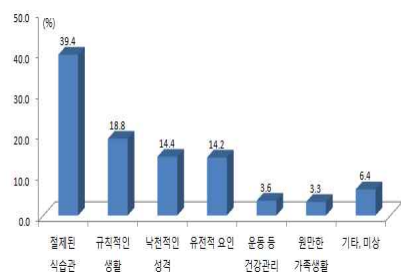
장수 비결은 절제된 식습관, 규칙적인 생활, 낙천적인 성격 순임

○ 100세 이상 고령자가 생각하는 장수 비결은 소식(小食) 등 절제된 식생활 습관(39.4%), 규칙적인 생활(18.8%), 낙천적인 성격(14.4%) 순임

○ 고령자가 현재의 삶(생활)에 대해 행복하다는 응답이 34.4%, 그저 그렇기가 46.6%, 불행하다는 응답이 14.3%임

* 2015 사회조사 결과 65세 이상 주관적 만족감 : 만족함(21.8%), 보통(52.9%), 불만족(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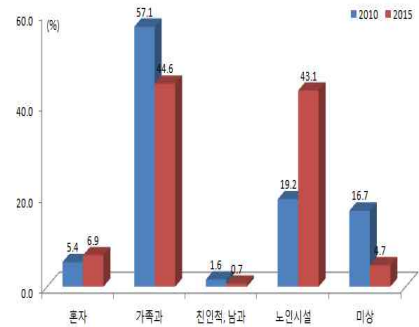
< 고령자의 장수 사유 >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는 44.6%이고, 노인시설에 사는 고령자는 43.1%임

- 100세 이상 고령자가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은 **44.6%**로 2010년 57.1%에 비해 **12.5%p** 감소
 - 노인 요양원, 요양병원에 거주하는 비율은 **43.1%**로 2010년(19.2%)에 비해 **23.9%p** 증가
- 세대구성별로 보면 **2세대 가구가 37.6%**이고, 3세대 가구(4.8%), 1세대 가구(1.4%) 순임
 - 1인 가구는 6.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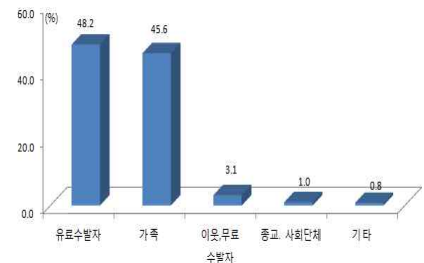
〈 고령자의 거주 형태 〉



고령자를 돌보는 사람은 유료 수발자(48.2%), 가족(45.6%) 순임

- 100세 이상 고령자를 돌보는 사람은 시설 종사자 및 간병인 등 **유료 수발자가 48.2%**이며,
 - 가족이 45.6%, 이웃 또는 무료 수발자가 3.1%
 - 남자 고령자는 가족이 돌보는 비율(55.6%)이 가장 높고, 여자 고령자는 유료 수발자 비율(50.5%)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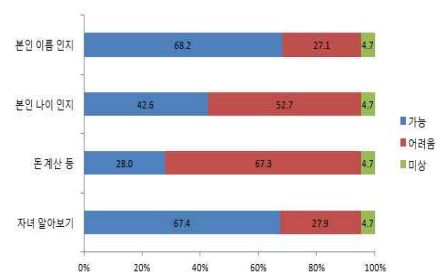
〈고령자를 돌보는 사람(복수 응답)〉



100세 이상 고령자 중 68.2%가 본인의 이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

- 본인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100세 이상 고령자는 **68.2%**이고, 본인의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고령자는 **42.6%**임
- 돈 계산 등이 가능한 고령자는 **28.0%**이고, 따로 사는 자녀를 알아보는 고령자는 **67.4%**로 나타남

〈 고령자의 인지 상태 〉



고령자가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병은 치매, 고혈압, 골관절염 순임

-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신체적 질병(만성 질환)이 있는 100세 이상 고령자는 **73.2%**임
 - 앓고 있는 질병은 치매(39.9%), 고혈압(28.6%), 퇴행성 관절염 등 골관절염(28.0%)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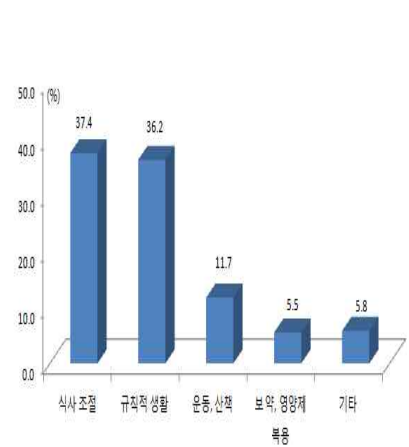
〈고령자 만성질환 종류(복수응답)〉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관리 방법은 식사 조절, 규칙적인 생활, 운동 순임

- 건강유지를 위해 관리를 하고 있는 100세 이상 고령자는 **60.8%**임
 - 방법으로는 식사 조절(37.4%), 규칙적인 생활(36.2%), 산책 등 운동(11.7%) 순임
- 고령자가 혼자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일상 행동은 '식사하기'(44.2%), '자리에서 일어났다 눕기'(35.7%), '옷 갈아입기'(28.5%) 순임
 - 고령자가 혼자 할 수 있다는 도구적 일상행동은 '전화걸기'(8.3%), '청소, 쓰레기 버리기 등 가벼운 집안일 하기'(7.3%)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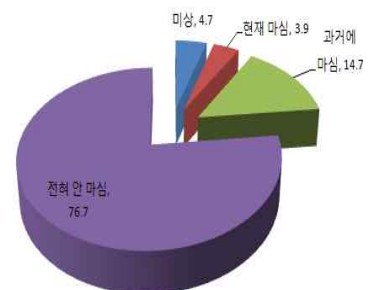
〈고령자의 건강관리 방법(복수 응답)〉



고령자의 76.7%가 평생 금주, 79.0%가 평생 금연함

- 과거부터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100세 이상 고령자는 **76.7%**이고,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은 고령자는 **79.0%**임
 - * 2014 사회조사 결과 65세 이상 평생 금주(39.3%), 평생 금연(63.7%)
- 고령자가 좋아하는 식품군은 채소류(53.6%), 육류(45.1%), 두부 등 콩제품(30.1%) 순이고,
 - 싫어하는 식품군은 육류(17.4%), 견과류(14.8%), 밀가루 음식류(13.9%)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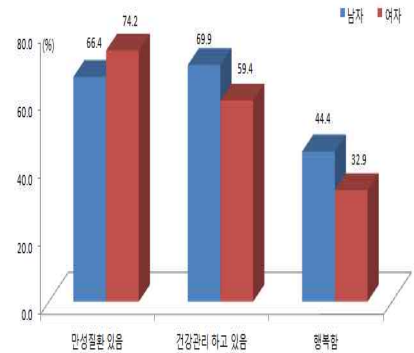
〈 고령자의 음주 여부 〉



남자 고령자가 여자 고령자보다 건강관리를 하고, 행복하다는 비율이 높음

- 만성질환이 있는 여자 고령자는 74.2%로 남자 고령자 66.4%보다 7.8%p 높음
 -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남자 고령자는 69.9%로 여자 고령자의 59.4%보다 10.5%p 높음
- 남자 고령자의 44.4%가 현재의 삶(생활)에 대해 행복하다고 응답했고, 여자 고령자의 32.9%가 행복하다고 응답했음

〈 남녀 고령자 비교 〉



100세 이상 고령자는 타지 자녀, 이웃 등과의 만남은 월 평균 4.7회임

-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평소 한 달 동안 따로 살고 있는 자녀, 이웃, 친척, 지인 등과 만남 횟수는 4.7회임
- 고령자가 평소 한 달 동안 따로 살고 있는 자녀, 이웃, 친척, 지인 등과 연락 횟수는 3.0회임
- 고령자의 월 평균 의료시설 이용 횟수는 1.4회임

〈 고령자의 대인 관계(만남) 〉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결과

1. 100세 이상 고령자 현황

가. 규 모

2015년 11월 1일 기준 100세 이상 인구는 3,159명, 인구 10만 명당 6.6명

- 2015. 11. 1. 현재 우리나라 만 100세 이상 고령자는 3,159명으로 2010년 1,835명에 비해 1,324명(72.2%) 증가
- 성별로 보면 여자가 2,731명으로 86.5%를 차지
-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는 2010년 3.8명에서 6.6명으로 증가
- 2010년 95세 이상 고령자(17,114명) 중 18.5% 생존(남자는 15.0%, 여자는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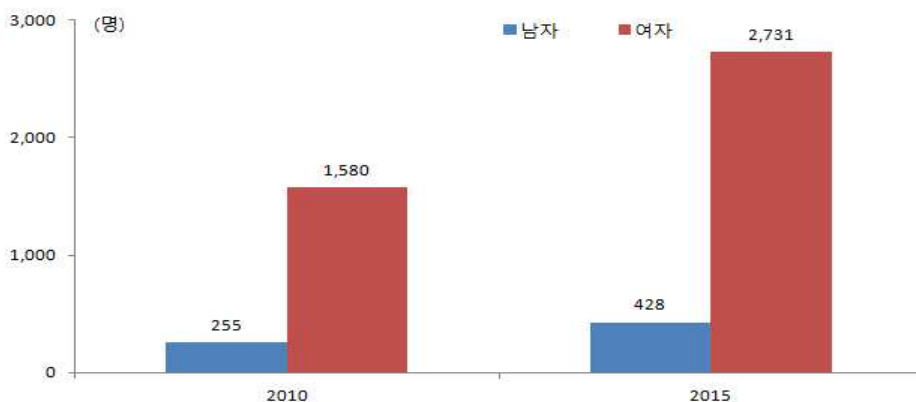
* 2010년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률은 16.6%임(남자는 14.5%, 여자는 17.0%)

〈 표1 〉 100세 이상 고령자 규모(2010, 2015)

(단위: 명, %)

	2010년(A)		2015년(B)		증 감(B-A)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증가율
전 체	1,835	100.0	3,159	100.0	1,324	72.2
남 자	255	13.9	428	13.5	173	67.8
여 자	1,580	86.1	2,731	86.5	1,151	72.8
인구 10만 명당	3.8	-	6.6	-	2.8	73.7

〈 그림1 〉 100세 이상 고령자 추이(2010, 2015)



나. 분 포

시도별 100세 이상은 경기(701명), 인구 10만 명당은 제주(17.2명)가 가장 많음

1) 시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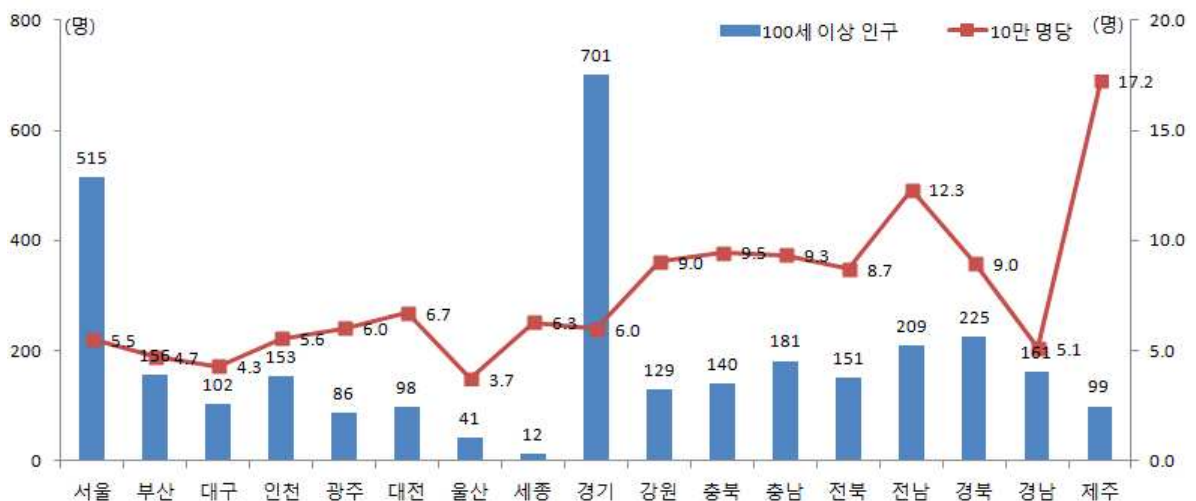
- 시도별 100세 이상 고령자는 경기도가 701명(22.2%)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515명(16.3%), 경북 225명(7.1%) 순임
-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는 제주가 17.2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남(12.3명), 충북(9.5명) 순임

〈 표2 〉 시도별 100세 이상 고령자 분포(2015)

(단위: 명, %)

	인 구	구성비	성 비	10만 명당		인 구	구성비	성 비	10만 명당
전 국	3,159	100.0	15.7	6.6	세 종	12	0.4	9.1	6.3
동지역	2,037	64.5	16.1	5.1	경 기	701	22.2	18.0	6.0
읍면지역	1,122	35.5	15.0	13.1	강 원	129	4.1	25.2	9.0
서 울	515	16.3	21.2	5.5	충 북	140	4.4	12.9	9.5
부 산	156	4.9	9.9	4.7	충 남	181	5.7	15.3	9.3
대 구	102	3.2	12.1	4.3	전 북	151	4.8	11.0	8.7
인 천	153	4.8	20.5	5.6	전 남	209	6.6	11.8	12.3
광 주	86	2.7	3.6	6.0	경 북	225	7.1	14.8	9.0
대 전	98	3.1	19.5	6.7	경 남	161	5.1	11.0	5.1
울 산	41	1.3	10.8	3.7	제 주	99	3.1	8.8	17.2

〈 그림2 〉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2015)



시군구는 경기 고양시(74명), 인구 10만 명당은 충북 괴산군(421명)이 가장 많음

2) 시군구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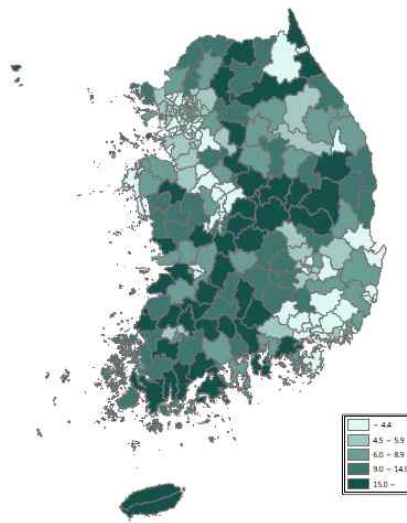
- 시군구별 100세 이상 고령자 규모를 보면 경기 고양시가 74명으로 가장 많으며, 제주 제주시(65명), 경기 성남시(60명), 경기 용인시(51명), 경기 부천시(48명) 순임
-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는 충북 괴산군이 42.1명으로 가장 많으며, 경북 문경시(33.9명), 전남 장성군(31.1명), 충남 서천군(31.0명), 강원 양양군(28.5명) 순임

〈 표3 〉 시군구별 100세 이상 고령자(인구 순위, 2015)

(단위: 명)

순 위	시도 및 시군구	인 구	순 위	시도 및 시군구	10만 명당
1	경기 고양시	74	1	충북 괴산군	42.1
2	제주 제주시	65	2	경북 문경시	33.9
3	경기 성남시	60	3	전남 장성군	31.1
4	경기 용인시	51	4	충남 서천군	31.0
5	경기 부천시	48	5	강원 양양군	28.5
6	대전 서구	44	6	전남 보성군	28.4
7	충북 청주시	43	7	충북 영동군	28.0
8	경남 창원시	39	8	전북 순창군	27.4
9	경기 수원시	36	9	전남 곡성군	26.7
10	전북 전주시	36	10	경남 남해군	26.6

〈 그림3 〉 시군구별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 분포(2015)



2. 100세 이상 고령자 특성

가. 주거 현황

노인시설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2010년에 비해 23.9%p 증가

1) 거처의 종류

-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노인시설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43.1%로 2010년 19.2%에 비해 23.9%p 증가
-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2010년에 비해 10.0%p 감소한 897명 (28.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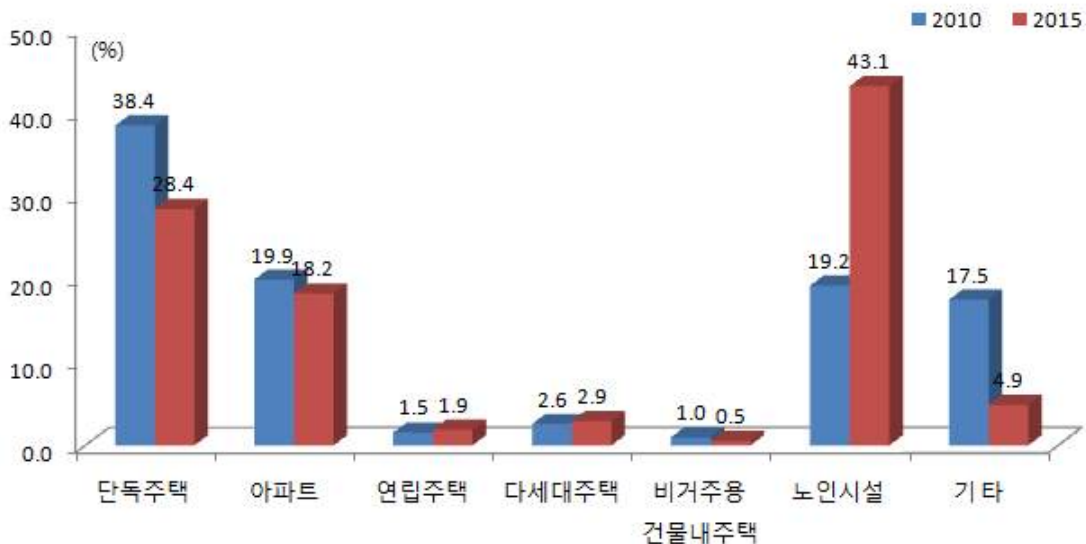
〈 표4 〉 거처의 종류별 고령자(2010, 2015)

(단위: 명,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노인시설*	기타, 미상
2010	1,835 (100.0)	705 (38.4)	365 (19.9)	28 (1.5)	47 (2.6)	18 (1.0)	352 (19.2)	321 (17.5)
2015	3,159 (100.0)	897 (28.4)	576 (18.2)	60 (1.9)	92 (2.9)	17 (0.5)	1,363 (43.1)	154 (4.9)

* 노인시설 : 노인요양시설 및 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 그림4 〉 거처의 종류별 고령자 분포(2010, 2015)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고령자를 배려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5.9%임

2) 점유 형태

□ 100세 이상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형태를 보면,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42.2%로 나타남

○ 동(洞) 지역은 39.5%, 읍면(邑面) 지역은 47.1%로 나타남

〈 표5 〉 주택의 점유 형태별 고령자(2015)

(단위: 명, %)

	계	주 택	주택 형태				노인시설*	기 타, 미 상
			자기 집	전 세	월 세	무 상		
전 체	3,159 (100.0)	1,642 (52.0)	1,334 (42.2)	132 (4.2)	138 (4.4)	38 (1.2)	1,363 (43.1)	154 (4.9)
동지역	2,037 (100.0)	1,066 (52.3)	805 (39.5)	108 (5.3)	125 (6.1)	28 (1.4)	847 (41.6)	124 (6.1)
읍면지역	1,122 (100.0)	576 (51.3)	529 (47.1)	24 (2.1)	13 (1.2)	10 (0.9)	516 (46.0)	30 (2.7)

* 노인시설 : 노인요양시설 및 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3) 주거 편의

□ 100세 이상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고령자를 배려한 설비 유무를 보면 설비를 갖춘 경우는 5.9%임

○ 동(洞) 지역은 6.9%, 읍면(邑面) 지역은 4.0%로 나타남

* 고령자를 배려한 설비 : 문턱 없애기, 경사 조절, 손잡이 설치 등

〈 표6 〉 고령자를 배려한 설비 유무별 고령자(2015)

(단위: 명, %)

	계	주 택	고령자를 배려한 설비 유무		노인시설*	기타, 미 상
			있 음	없 음		
전 체	3,159 (100.0)	1,642 (52.0)	185 (5.9)	1,457 (46.1)	1,363 (43.1)	154 (4.9)
동지역	2,037 (100.0)	1,066 (52.3)	140 (6.9)	926 (45.5)	847 (41.6)	124 (6.1)
읍면지역	1,122 (100.0)	576 (51.3)	45 (4.0)	531 (47.3)	516 (46.0)	30 (2.7)

* 노인시설 : 노인요양시설 및 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나. 고령자 및 가족에 관한 사항

100세 이상 고령자는 무학(無學)이 79.3%, 사별이 90.9%임

1) 교육 정도

- 100세 이상 고령자의 교육 정도별 분포를 보면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79.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초등학교(10.7%), 고등학교(2.1%) 순임
-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남자 고령자의 경우 45.3%로 나타난 반면, 여자 고령자는 84.6%로 나타남

〈 표7 〉 교육 정도별 고령자(2015)

(단위: 명, %)

	계	받지 않았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미상
전체	3,159 (100.0)	2,504 (79.3)	338 (10.7)	56 (1.8)	66 (2.1)	47 (1.5)	148 (4.7)
남자	428 (100.0)	194 (45.3)	107 (25.0)	31 (7.2)	39 (9.1)	29 (6.8)	28 (6.5)
여자	2,731 (100.0)	2,310 (84.6)	231 (8.5)	25 (0.9)	27 (1.0)	18 (0.7)	120 (4.4)

2) 혼인 상태

- 고령자의 혼인 상태가 사별인 경우는 90.9%를 차지하였음
- 남자 고령자의 배우자는 23.1%가 생존하고 있으나, 여자 고령자의 배우자는 0.3%가 생존하고 있음

〈 표8 〉 혼인 상태별 고령자(2015)

(단위: 명, %)

	계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미상
전체	3,159 (100.0)	22 (0.7)	108 (3.4)	2,871 (90.9)	10 (0.3)	148 (4.7)
남자	428 (100.0)	2 (0.5)	99 (23.1)	299 (69.9)	- (-)	28 (6.5)
여자	2,731 (100.0)	20 (0.7)	9 (0.3)	2,572 (94.2)	10 (0.4)	120 (4.4)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는 44.6%이고, 노인시설에 사는 고령자는 43.1%임

3) 동거 가족(복수 응답)

- 100세 이상 고령자가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은 44.6%로 2010년 57.1%에 비해 12.5%p 감소
- 반면 노인 요양원, 요양병원 등 노인시설에 거주하는 비율은 43.1%로 2010년 19.2%에 비해 23.9%p 증가

< 표9 > 거주 형태별 고령자(2010, 2015)

(단위: 명, %)

	계	혼 자	가족과 함께	친척·인척, 남과 함께	노인시설*	미 상
2010	1,835 (100.0)	100 (5.4)	1,048 (57.1)	29 (1.6)	352 (19.2)	307 (16.7)
2015	3,159 (100.0)	217 (6.9)	1,408 (44.6)	23 (0.7)	1,363 (43.1)	148 (4.7)

* 노인시설 : 노인요양시설 및 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 고령자를 세대구성별로 보면 친족 가구는 44.6%, 1인 가구는 6.9%로 나타남
- 부부만 동거하는 1세대 가구는 1.4%이고,
- 2세대 가구의 비중이 37.6%로 가장 높은 가운데 자녀 없이 손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2.1%로 나타남

< 표10 > 세대구성별 고령자(노인시설 제외, 2015)

(단위: 명, %)

	전 체		남 자		여 자	
계	3,159	(100.0)	428	(100.0)	2,731	(100.0)
1인 가구	217	(6.9)	42	(9.8)	175	(6.4)
친족 가구	1,408	(44.6)	243	(56.8)	1,165	(42.7)
1세대 가구	45	(1.4)	43	(10.0)	2	(0.1)
2세대 가구	1,189	(37.6)	177	(41.4)	1,012	(37.1)
자녀 동거	1,122	(35.5)	171	(40.0)	951	(34.8)
손자녀 동거	67	(2.1)	6	(1.4)	61	(2.2)
3세대 가구	153	(4.8)	19	(4.4)	134	(4.9)
4세대 가구	21	(0.7)	4	(0.9)	17	(0.6)
비친족가구	1,386	(43.9)	115	(26.9)	1,271	(46.5)
미 상	148	(4.7)	28	(6.5)	120	(4.4)

고령자를 돌보는 사람은 유료 수발자(48.2%), 가족(45.6%) 순임

4) 돌보는 사람(복수 응답)

- 100세 이상 고령자를 돌보는 사람은 시설 종사자 및 간병인 등 유료 수발자가 48.2%, 가족이 45.6%, 이웃 또는 무료 수발자가 3.1%임
- 남자 고령자는 가족이 돌보는 비율(55.6%)이 가장 높고, 여자 고령자는 유료 수발자 비율(50.5%)이 가장 높음

〈 표11 〉 돌보는 사람별 고령자(복수 응답, 2015)

(단위: 명, %)

	계	수발자 있음	가 족	이웃, 무료 수발자	유 료 수발자	종교· 사회단체	기 타	수발자 없음	미 상
전 체	3,159 (100.0)	2,906 (92.0)	1,442 (45.6)	99 (3.1)	1,524 (48.2)	33 (1.0)	25 (0.8)	105 (3.3)	148 (4.7)
남 자	428 (100.0)	377 (88.1)	238 (55.6)	14 (3.3)	145 (33.9)	4 (0.9)	3 (0.7)	23 (5.4)	28 (6.5)
여 자	2,731 (100.0)	2,529 (92.6)	1,204 (44.1)	85 (3.1)	1,379 (50.5)	29 (1.1)	22 (0.8)	82 (3.0)	120 (4.4)

- 고령자를 가족이 돌보는 경우, 자녀 및 그 배우자가 92.3%이고, 손자·손녀 및 그 배우자 등이 10.9%임
- 배우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경우가 4.4%인데, 남자 고령자 중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는 22.7%로 나타남

〈 표12 〉 돌보는 가족 유형별 고령자(복수 응답, 2015)

(단위: 명, %)

	계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아 들	며느리	딸	사 위	손 자, 손 녀 등
전 체	1,442 (100.0)	63 (4.4)	1,331 (92.3)	827 (57.4)	835 (57.9)	357 (24.8)	106 (7.4)	157 (10.9)
남 자	238 (100.0)	54 (22.7)	198 (83.2)	128 (53.8)	136 (57.1)	40 (16.8)	20 (8.4)	11 (4.6)
여 자	1,204 (100.0)	9 (0.7)	1,133 (94.1)	699 (58.1)	699 (58.1)	317 (26.3)	86 (7.1)	146 (12.1)

종교가 있는 비율은 55.2%, 생애 주된 직업은 농림어업 종사자(36.6%)가 가장 많았음

5) 종교

- 종교가 있는 10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55.2%로 나타났음
- 종교 활동 기간별로 보면 40~59년이 14.4%로 가장 많고, 20~39년(11.7%), 60~79년(11.0%) 순임

< 표13 > 종교 유무 및 활동 기간별 고령자(2015)

(단위: 명, %)

	계	종교 있음	19년 이하	20~39년	40~59년	60~79년	80년 이상	종교 없음	미상
전체	3,159 (100.0)	1,745 (55.2)	261 (8.3)	369 (11.7)	454 (14.4)	347 (11.0)	314 (9.9)	1,266 (40.1)	148 (4.7)
남자	428 (100.0)	192 (44.9)	41 (9.6)	32 (7.5)	41 (9.6)	37 (8.6)	41 (9.6)	208 (48.6)	28 (6.5)
여자	2,731 (100.0)	1,553 (56.9)	220 (8.1)	337 (12.3)	413 (15.1)	310 (11.4)	273 (10.0)	1,058 (38.7)	120 (4.4)

6) 생애 주된 직업

- 직업이 있었던 10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53.4%로 나타났음
 - 남자 고령자의 87.1%가 직업이 있었고, 여자 고령자의 48.1%가 직업이 있었음
- 고령자가 주로 종사 했던 직업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36.6%로 가장 많았고, 판매 종사자(5.8%), 단순 노무자(3.4%) 순임

< 표14 > 직업 유무 및 생애 주된 직업별 고령자(2015)

(단위: 명, %)

	계	직업 있음	관리자, 전문가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기타*	직업 없음	미상
전체	3,159 (100.0)	1,687 (53.4)	79 (2.5)	184 (5.8)	1,157 (36.6)	108 (3.4)	159 (5.0)	1,324 (41.9)	148 (4.7)
남자	428 (100.0)	373 (87.1)	50 (11.7)	42 (9.8)	165 (38.6)	24 (5.6)	92 (21.5)	27 (6.3)	28 (6.5)
여자	2,731 (100.0)	1,314 (48.1)	29 (1.1)	142 (5.2)	992 (36.3)	84 (3.1)	67 (2.5)	1,297 (47.5)	120 (4.4)

* 기타 :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군인

- 직업이 있었던 고령자를 종사 기간별로 보면 50~59년이 20.5%로 가장 많고, 60~69년(19.8%), 20~39년(19.6%) 순임

〈 표15 〉 종사 기간별 고령자(2015)

(단위: 명, %)

	계	19년 이하	20~39년	40~49년	50~59년	60~69년	70년 이상
전 체	1,687 (100.0)	92 (5.5)	330 (19.6)	280 (16.6)	346 (20.5)	334 (19.8)	305 (18.1)
남 자	373 (100.0)	20 (5.4)	103 (27.6)	79 (21.2)	59 (15.8)	59 (15.8)	53 (14.2)
여 자	1,314 (100.0)	72 (5.5)	227 (17.3)	201 (15.3)	287 (21.8)	275 (20.9)	252 (19.2)

7) 부모 형제 장수 여부(복수 응답)

- 85세 이상 장수한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100세 이상 고령자는 33.3%로 나타남

〈 표16 〉 부모 형제 장수 여부별 고령자(복수 응답, 2015)

(단위: 명, %)

	계	장수한 부모, 형제 있음			형제자매	장수한 부모, 형제 없음	
		부	모	미 상		미 상	
전 체	3,159 (100.0)	1,051 (33.3)	121 (3.8)	249 (7.9)	892 (28.2)	1,960 (62.0)	148 (4.7)
남 자	428 (100.0)	130 (30.4)	25 (5.8)	36 (8.4)	105 (24.5)	270 (63.1)	28 (6.5)
여 자	2,731 (100.0)	921 (33.7)	96 (3.5)	213 (7.8)	787 (28.8)	1,690 (61.9)	120 (4.4)

다. 건강 상태

고령자가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병은 치매, 고혈압, 골관절염 순임

1) 주관적 건강 상태

- 연령을 감안한 100세 이상 고령자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보면 '건강한 편임'은 32.3%, '건강이 나쁜 편임'은 21.8%, '그저 그런 편임'이 20.3% 순임

〈 표17 〉 주관적 건강 상태별 고령자(2015)

(단위: 명, %)

	계	매우 건강함	건강한 편임	그저 그런 편임	건강이 나쁜 편임	건강이 매우 나쁨	미 상
전 체	3,159 (100.0)	256 (8.1)	1,019 (32.3)	642 (20.3)	689 (21.8)	405 (12.8)	148 (4.7)
남 자	428 (100.0)	47 (11.0)	164 (38.3)	82 (19.2)	70 (16.4)	37 (8.6)	28 (6.5)
여 자	2,731 (100.0)	209 (7.7)	855 (31.3)	560 (20.5)	619 (22.7)	368 (13.5)	120 (4.4)

2) 신체 건강 상태(복수 응답)

-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신체적인 질병(만성 질환)이 있는 100세 이상 고령자는 73.2%로 나타남
- 질병의 종류별로 보면 치매가 39.9%로 가장 많고, 고혈압(28.6%), 퇴행성 관절염 등 골관절염(28.0%) 순임

〈 표18 〉 신체적인 질병 유무 및 질병 종류별 고령자(복수 응답, 2015)

(단위: 명, %)

	계	질 병 있 음	질 병					질 병 없 음	미 상
			고혈압	치 매	골관절염	천식 및 기관지염	기 타*		
전 체	3,159 (100.0)	2,311 (73.2)	903 (28.6)	1,261 (39.9)	886 (28.0)	185 (5.9)	574 (18.2)	700 (22.2)	148 (4.7)
남 자	428 (100.0)	284 (66.4)	120 (28.0)	105 (24.5)	76 (17.8)	28 (6.5)	110 (25.7)	116 (27.1)	28 (6.5)
여 자	2,731 (100.0)	2,027 (74.2)	783 (28.7)	1,156 (42.3)	810 (29.7)	157 (5.7)	464 (17.0)	584 (21.4)	120 (4.4)

* 기타 : 당뇨, 뇌졸중(중풍), 심장병, 암, 간질환 등

고령자 중 13.7%가 시력 보조기, 29.1%가 치아 보조기를 사용함

3) 신체 기능 상태

- 안경, 돋보기 등 시력 보조기를 사용하는 100세 이상 고령자는 13.7%이고,
 - 보조기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TV, 신문 등을 보는데 ‘불편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고령자는 26.1%임
- 보청기 등 청력 보조기를 사용하는 고령자는 10.3%이고,
 - 보조기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전화 통화나 옆 사람과의 대화 등이 ‘불편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고령자는 18.0%임
- 틀니 등을 사용하는 고령자는 29.1%이고,
 - 보조기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고기나 딱딱한 것 씹기 등이 ‘불편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고령자는 13.1%임
- 시력, 청력, 치아의 기능 상태가 모두 ‘불편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고령자는 7.7%(244명)임

〈 표19 〉 보조기 사용 여부 및 기능 상태별 고령자(2015)

(단위: 명, %)

	계	보조기 사용 여부		기능 상태			미 상
		사 용	사용 안함	불편하지 않음	불편한 편임	매우 불편함	
시 력	3,159 (100.0)	433 (13.7)	2,578 (81.6)	825 (26.1)	1,124 (35.6)	1,062 (33.6)	148 (4.7)
청 력	3,159 (100.0)	326 (10.3)	2,685 (85.0)	570 (18.0)	1,128 (35.7)	1,313 (41.6)	148 (4.7)
치 아	3,159 (100.0)	920 (29.1)	2,091 (66.2)	414 (13.1)	1,064 (33.7)	1,533 (48.5)	148 (4.7)

고령자 중 68.2%가 본인의 이름, 42.6%가 본인의 나이를 정확히 인지함

4) 인지 상태

□ 본인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100세 이상 고령자는 68.2%임

○ 남자 고령자의 79.7%, 여자 고령자의 66.4%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함

□ 본인의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고령자는 42.6%임

○ 남자 고령자의 61.9%, 여자 고령자의 39.5%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함

□ 돈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고령자는 28.0%임

○ 남자 고령자의 47.2%, 여자 고령자의 25.0%가 할 수 있다고 응답함

□ 따로 사는 자녀들을 알아 볼 수 있는 고령자는 67.4%임

○ 남자 고령자의 79.0%, 여자 고령자의 65.6%가 알아 볼 수 있다고 응답함

□ 위의 네 가지가 모두 가능한 고령자는 25.5%(806명)임

○ 남자 고령자의 44.6%(191명), 여자 고령자의 22.5%(615명)가 모두 가능

< 표20 > 인지 상태별 고령자(2015)

(단위: 명, %)

	계	본인의 이름		본인의 나이		돈 계산 등		따로 사는 자녀들을		미 상
		잘 알고 있음	잘 모름	잘 알고 있음	잘 모름	잘 할 수 있음	잘 할 수 없음	알아 볼 수 있음	알아 볼 수 없음	
전 체	3,159 (100.0)	2,155 (68.2)	856 (27.1)	1,345 (42.6)	1,666 (52.7)	885 (28.0)	2,126 (67.3)	2,129 (67.4)	882 (27.9)	148 (4.7)
남 자	428 (100.0)	341 (79.7)	59 (13.8)	265 (61.9)	135 (31.5)	202 (47.2)	198 (46.3)	338 (79.0)	62 (14.5)	28 (6.5)
여 자	2,731 (100.0)	1,814 (66.4)	797 (29.2)	1,080 (39.5)	1,531 (56.1)	683 (25.0)	1,928 (70.6)	1,791 (65.6)	820 (30.0)	120 (4.4)

고령자 중 44.2%가 '식사하기', 35.7%가 '일어났다 눕기'를 혼자 할 수 있음

5)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

- 100세 이상 고령자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기본적 일상 행동 '식사하기'(44.2%)가 가장 많았고,
- 다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눕기'(35.7%), '옷 갈아입기'(28.5%) 순임

〈 표21 〉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별 고령자(2015)

(단위: 명, %)

	계	혼자 할 수 있음	약간 어려움	매우 어려움	전혀 할 수 없음	미상
세수하기·양치질하기·머리감기	3,159 (100.0)	885 (28.0)	621 (19.7)	658 (20.8)	847 (26.8)	148 (4.7)
옷 갈아입기	3,159 (100.0)	899 (28.5)	613 (19.4)	649 (20.5)	850 (26.9)	148 (4.7)
식사하기	3,159 (100.0)	1,397 (44.2)	585 (18.5)	447 (14.2)	582 (18.4)	148 (4.7)
자리에서 일어났다 눕기	3,159 (100.0)	1,127 (35.7)	585 (18.5)	559 (17.7)	740 (23.4)	148 (4.7)
걷기	3,159 (100.0)	748 (23.7)	544 (17.2)	640 (20.3)	1,079 (34.2)	148 (4.7)
화장실 이용하기	3,159 (100.0)	808 (25.6)	502 (15.9)	590 (18.7)	1,111 (35.2)	148 (4.7)

-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제약개수*가 6개인 고령자는 48.1%이며, 제약이 하나도 없는 고령자는 17.5%임

* 제약개수 :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 6개 항목 중 '혼자 할 수 있음'으로 응답한 항목을 제외하고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의 개수를 더한 값

〈 표22 〉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약개수별 고령자(2015)

(단위: 명, %)

	계	제약 없음	제약 있음	제약 있음			미상
				1개	2~5개	6개	
전체	3,159 (100.0)	552 (17.5)	2,459 (77.8)	168 (5.3)	770 (24.4)	1,521 (48.1)	148 (4.7)
남자	428 (100.0)	135 (31.5)	265 (61.9)	23 (5.4)	90 (21.0)	152 (35.5)	28 (6.5)
여자	2,731 (100.0)	417 (15.3)	2,194 (80.3)	145 (5.3)	680 (24.9)	1,369 (50.1)	120 (4.4)

고령자 중 8.3%가 '전화 걸기, 7.3%가 '가벼운 집안일 하기를 혼자 할 수 있음

6)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IADL)

- 100세 이상 고령자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도구적 일상 행동 '전화걸기'(8.3%)가 가장 많았고,
- 다음으로 '청소, 쓰레기 버리기 등 가벼운 집안일 하기'(7.3%), '생활용품 또는 약 사러가기'(5.8%) 순임

〈 표23 〉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별 고령자(2015)

(단위: 명, %)

	계	혼자 할 수 있음	약 간 어려움	매 우 어려움	전혀 할 수 없음	미 상
생활용품 또는 약 사러가기	3,159 (100.0)	184 (5.8)	209 (6.6)	456 (14.4)	2,162 (68.4)	148 (4.7)
전화걸기	3,159 (100.0)	262 (8.3)	275 (8.7)	459 (14.5)	2,015 (63.8)	148 (4.7)
버스나 전철 혼자타기	3,159 (100.0)	79 (2.5)	137 (4.3)	334 (10.6)	2,461 (77.9)	148 (4.7)
청소, 쓰레기 버리기 등 가벼운 집안일 하기	3,159 (100.0)	230 (7.3)	227 (7.2)	344 (10.9)	2,210 (70.0)	148 (4.7)

-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제약개수*가 4개인 고령자는 83.1%이며, 제약이 하나도 없는 고령자는 2.1%임

* 제약개수 :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IADL) 4개 항목 중 '혼자 할 수 있음'으로 응답한 항목을 제외하고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의 개수를 더한 값

〈 표24 〉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약개수별 고령자(2015)

(단위: 명, %)

	계	제약 없음	제약 있음	제약 있음			미 상
				1개	2~3개	4개	
전 체	3,159 (100.0)	66 (2.1)	2,945 (93.2)	40 (1.3)	279 (8.8)	2,626 (83.1)	148 (4.7)
남 자	428 (100.0)	37 (8.6)	363 (84.8)	17 (4.0)	61 (14.3)	285 (66.6)	28 (6.5)
여 자	2,731 (100.0)	29 (1.1)	2,582 (94.5)	23 (0.8)	218 (8.0)	2,341 (85.7)	120 (4.4)

건강관리 방법은 식사 조절(37.4%), 규칙적인 생활(36.2%), 운동(11.7%) 순임

7) 건강관리 방법(복수 응답)

- 건강유지를 위해 관리를 하는 100세 이상 고령자는 60.8%로 나타남
 - 남자 고령자의 69.9%가 건강관리를 하고, 여자 고령자는 59.4%가 건강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관리 방법별로 보면 식사 조절(37.4%)이 가장 많고, 규칙적인 생활(36.2%), 산책 등 운동(11.7%) 순임

〈 표25 〉 건강관리 방법별 고령자(복수 응답, 2015)

(단위: 명, %)

	계	있 음	운 동, 산 책	식 사 조 절	보 약, 영양제 복 용	규 칙 적 생 활	기 타*	없 음	미 상
전 체	3,159 (100.0)	1,920 (60.8)	369 (11.7)	1,183 (37.4)	173 (5.5)	1,144 (36.2)	183 (5.8)	1,091 (34.5)	148 (4.7)
남 자	428 (100.0)	299 (69.9)	112 (26.2)	144 (33.6)	25 (5.8)	162 (37.9)	48 (11.2)	101 (23.6)	28 (6.5)
여 자	2,731 (100.0)	1,621 (59.4)	257 (9.4)	1,039 (38.0)	148 (5.4)	982 (36.0)	135 (4.9)	990 (36.3)	120 (4.4)

* 기타 : 담배, 술 등의 절제, 목욕, 사우나 등

라. 생활 습관

100세 이상 고령자가 좋아하는 식품군은 채소류, 육류, 콩제품류 순임

1) 선호 식품(복수 응답)

- 100세 이상 고령자가 좋아하는 식품군은 채소류가 53.6%로 가장 많고, 다음은 육류(45.1%), 두부 등 콩제품(30.1%) 순임
- 남자 고령자는 육류(57.5%)를 가장 많고, 여자 고령자는 채소류(55.5%)가 가장 많음

〈 표26 〉 좋아하는 식품별 고령자(복수 응답, 2015)

(단위: 명, %)

	계	채소류	육 류	어패류	과일류	두부 등 콩제품	곡 류	기 타*	미 상
전 체	3,159 (100.0)	1,693 (53.6)	1,426 (45.1)	923 (29.2)	625 (19.8)	951 (30.1)	466 (14.8)	824 (26.1)	148 (4.7)
남 자	428 (100.0)	176 (41.1)	246 (57.5)	152 (35.5)	67 (15.7)	120 (28.0)	55 (12.9)	109 (25.5)	28 (6.5)
여 자	2,731 (100.0)	1,517 (55.5)	1,180 (43.2)	771 (28.2)	558 (20.4)	831 (30.4)	411 (15.0)	715 (26.2)	120 (4.4)

* 난류(달걀류), 유제품류, 해조류, 견과류, 밀가루 음식류 등

- 고령자가 싫어하는 식품군은 육류가 17.4%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견과류(14.8%), 밀가루 음식류(13.9%) 순임
- 남자 고령자는 밀가루 음식류(14.3%)가 가장 많고, 여자 고령자는 육류(18.8%)가 가장 많음

〈 표27 〉 싫어하는 식품별 고령자(복수 응답, 2015)

(단위: 명, %)

	계	육 류	어패류	난 류 (달걀류)	유제품류	견과류	밀가루 음식류	기 타*	무응답, 미 상
전 체	3,159 (100.0)	551 (17.4)	258 (8.2)	121 (3.8)	321 (10.2)	466 (14.8)	438 (13.9)	443 (14.0)	1,361 (43.1)
남 자	428 (100.0)	38 (8.9)	26 (6.1)	13 (3.0)	48 (11.2)	58 (13.6)	61 (14.3)	98 (22.9)	178 (41.6)
여 자	2,731 (100.0)	513 (18.8)	232 (8.5)	108 (4.0)	273 (10.0)	408 (14.9)	377 (13.8)	345 (12.6)	1,183 (43.3)

* 채소류, 과일류, 두부 등 콩제품, 해조류, 곡류 등

고령자의 76.7%가 평생 금주, 79.0%가 평생 금연합

2) 음주 여부

-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100세 이상 고령자는 76.7%로 나타났음
 - 남자 고령자의 47.2%가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여자 고령자는 81.3%가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음
 - * 2014 사회조사 결과 65세 이상 평생 금주 비율 : 39.3%(남자는 13.6%, 여자는 57.8%)
- 평균 음주 기간은 43.9년(남자는 50.3년, 여자는 40.7년)임

〈 표28 〉 음주 여부 및 음주 기간별 고령자(2015)

(단위: 명, %)

	계	현 재 마 심	과거에 마 심	19년 이하	20~39년	40~59년	60년 이상	전혀 안 마 심	미 상
전 체	3,159 (100.0)	124 (3.9)	464 (14.7)	56 (1.8)	172 (5.4)	192 (6.1)	168 (5.3)	2,423 (76.7)	148 (4.7)
남 자	428 (100.0)	45 (10.5)	153 (35.7)	8 (1.9)	50 (11.7)	64 (15.0)	76 (17.8)	202 (47.2)	28 (6.5)
여 자	2,731 (100.0)	79 (2.9)	311 (11.4)	48 (1.8)	122 (4.5)	128 (4.7)	92 (3.4)	2,221 (81.3)	120 (4.4)

3) 흡연 여부

-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은 100세 이상 고령자는 79.0%로 나타났음
 - 남자 고령자의 47.7%가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여자 고령자는 84.0%가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았음
 - * 2014 사회조사 결과 65세 이상 평생 금연 비율 : 63.7%
- 평균 흡연 기간은 38.6년(남자는 42.0년, 여자는 36.5년)임

〈 표29 〉 흡연 여부 및 흡연 기간별 고령자(2015)

(단위: 명, %)

	계	현 재 피 음	과거에 피 음	19년 이하	20~39년	40~59년	60년 이상	전혀 안 피 음	미 상
전 체	3,159 (100.0)	44 (1.4)	470 (14.9)	84 (2.7)	174 (5.5)	142 (4.5)	114 (3.6)	2,497 (79.0)	148 (4.7)
남 자	428 (100.0)	12 (2.8)	184 (43.0)	17 (4.0)	64 (15.0)	68 (15.9)	47 (11.0)	204 (47.7)	28 (6.5)
여 자	2,731 (100.0)	32 (1.2)	286 (10.5)	67 (2.5)	110 (4.0)	74 (2.7)	67 (2.5)	2,293 (84.0)	120 (4.4)

4) 음주 및 흡연 여부

- 음주와 흡연 여부의 교차분석 결과 음주 및 흡연을 전혀 하지 않는 고령자는 73.0%이고, 현재 음주와 흡연을 하는 고령자는 0.4%임

〈 표30 〉 음주 및 흡연 여부 고령자(2015)

(단위: 명, %)

	계	현재 피음	과거에 피음	전혀 피우지 않음
계	3,011 (100.0)	44 (1.5)	470 (15.6)	2,497 (82.9)
현재 마심	124 (4.1)	12 (0.4)	39 (1.3)	73 (2.4)
과거에 마심	464 (15.4)	6 (0.2)	231 (7.7)	227 (7.5)
전혀 마시지 않음	2,423 (80.5)	26 (0.9)	200 (6.6)	2,197 (73.0)

5) 시간 활용

- 평소 낮에 하는 활동이 있다고 응답한 100세 이상 고령자는 50.7%임
- 남자 고령자의 64.0%가 하는 활동이 있고, 여자 고령자는 48.6%가 하는 활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평소 낮의 활동을 유형별로 보면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가 38.5%로 가장 많고, '친구 등 다른 사람과 사교'(8.8%),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다님'(6.4%) 순임

〈 표31 〉 시간 활용별 고령자(복수 응답, 2015)

(단위: 명, %)

	계	활동이 있음	집안 (가사) 일	TV시청 라디오청취	친구 등과 사교	노인정, 마을회관	기 타*	활동이 없음	미 상
전 체	3,159 (100.0)	1,601 (50.7)	167 (5.3)	1,216 (38.5)	277 (8.8)	202 (6.4)	395 (12.5)	1,410 (44.6)	148 (4.7)
남 자	428 (100.0)	274 (64.0)	11 (2.6)	216 (50.5)	48 (11.2)	38 (8.9)	73 (17.1)	126 (29.4)	28 (6.5)
여 자	2,731 (100.0)	1,327 (48.6)	156 (5.7)	1,000 (36.6)	229 (8.4)	164 (6.0)	322 (11.8)	1,284 (47.0)	120 (4.4)

* 기타 : 종교 활동, 텃밭 가꾸기 등 가벼운 일, 산책, 시설 프로그램 참여 등

100세 이상 고령자는 타지 자녀, 이웃 등과의 만남은 월 평균 4.7회임

6) 대인 관계

□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평소 한 달 동안 따로 살고 있는 자녀, 이웃, 친척, 지인 등 1회 이하로 만나는 경우는 43.1%임

○ 만남이 10회 이상의 경우는 14.4%이며, 2회(13.2%), 4회(11.6%) 순임

□ 평균 만남 횟수는 월 4.7회(남자는 5.1회, 여자는 4.7회)임

< 표32 > 만남 횟수별 고령자(2015)

(단위: 명, %)

	평균횟수	계	1회 이하	2회	3회	4회	5~9회	10회 이상	미 상
전 체	4.7	3,159 (100.0)	1,360 (43.1)	418 (13.2)	167 (5.3)	368 (11.6)	242 (7.7)	456 (14.4)	148 (4.7)
남 자	5.1	428 (100.0)	155 (36.2)	66 (15.4)	23 (5.4)	57 (13.3)	34 (7.9)	65 (15.2)	28 (6.5)
여 자	4.7	2,731 (100.0)	1,205 (44.1)	352 (12.9)	144 (5.3)	311 (11.4)	208 (7.6)	391 (14.3)	120 (4.4)

□ 고령자가 평소 한 달 동안 따로 살고 있는 자녀, 이웃, 친척, 지인 등과 1회 이하로 연락하는 경우는 61.9%임

○ 연락이 10회 이상 경우는 9.9%, 2회(7.7%), 4회(7.2%) 순임

□ 평균 연락 횟수는 월 3.0회(남자는 4.2회, 여자는 2.8회)임

< 표33 > 연락 횟수별 고령자(2015)

(단위: 명, %)

	평균횟수	계	1회 이하	2회	3회	4회	5~9회	10회 이상	미 상
전 체	3.0	3,159 (100.0)	1,956 (61.9)	244 (7.7)	109 (3.5)	229 (7.2)	161 (5.1)	312 (9.9)	148 (4.7)
남 자	4.2	428 (100.0)	208 (48.6)	44 (10.3)	14 (3.3)	48 (11.2)	31 (7.2)	55 (12.9)	28 (6.5)
여 자	2.8	2,731 (100.0)	1,748 (64.0)	200 (7.3)	95 (3.5)	181 (6.6)	130 (4.8)	257 (9.4)	120 (4.4)

마. 기 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월 평균 의료시설 이용 횟수는 1.4회임

1) 생활비 부담 방법(복수 응답)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의식주, 의료비, 용돈 등 생활비의 부담 방법은 자녀 또는 친척 지원이 80.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60.4% 순으로 나타남

〈 표34 〉 생활비 부담별 고령자(복수 응답, 2015)

(단위: 명, %)

	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웃, 종교단체, 사회단체	미 상
전 체	3,159 (100.0)	206 (6.5)	2,543 (80.5)	1,907 (60.4)	31 (1.0)	148 (4.7)
남 자	428 (100.0)	62 (14.5)	335 (78.3)	219 (51.2)	5 (1.2)	28 (6.5)
여 자	2,731 (100.0)	144 (5.3)	2,208 (80.8)	1,688 (61.8)	26 (1.0)	120 (4.4)

2) 의료시설 이용

- 의료시설을 이용한 고령자는 월 1회가 53.1%로 가장 많고, 월 2회(5.3%), 월 4회 이상(2.7%) 순임
- 고령자의 월 평균 의료시설 이용 횟수는 1.4회임

〈 표35 〉 의료시설 이용 횟수별 고령자(2015)

(단위: 명, %)

	계	이용한적 있음	평균 횟 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이용한적 없음	미 상
전 체	2,806 (100.0)	1,762 (62.8)	1.4	1,490 (53.1)	148 (5.3)	49 (1.7)	75 (2.7)	896 (31.9)	148 (5.3)
남 자	390 (100.0)	232 (59.5)	1.4	188 (48.2)	24 (6.2)	11 (2.8)	9 (2.3)	130 (33.3)	28 (7.2)
여 자	2,416 (100.0)	1,530 (63.3)	1.4	1,302 (53.9)	124 (5.1)	38 (1.6)	66 (2.7)	766 (31.7)	120 (5.0)

※ 요양병원 입원한 고령자 제외

남자 고령자가 여자 고령자보다 '희노애락(喜怒哀樂)' 감정을 잘 표현함

3) 감정 표현

□ 100세 이상 고령자의 평소 즐거움이나 기쁨에 대한 감정 표현 정도를 살펴보면 '잘 표현하는 편임'(32.9%), '그저 그런 편임'(22.3%), '매우 잘 표현함' (16.5%) 순임

○ 즐거움이나 기쁨에 대한 감정 표현을 잘 표현하는 남자 고령자는 54.7% 이고, 여자 고령자는 48.6%로 나타남

〈 표36 〉 즐거움, 기쁨의 감정 표현별 고령자(2015)

(단위: 명, %)

	계	매우 잘 표현함	잘 표현하는 편임	그저 그런 편임	표현하지 않는 편임	전혀 표현하지 않음	미 상
전 체	3,159 (100.0)	522 (16.5)	1,039 (32.9)	706 (22.3)	501 (15.9)	243 (7.7)	148 (4.7)
남 자	428 (100.0)	92 (21.5)	142 (33.2)	85 (19.9)	61 (14.3)	20 (4.7)	28 (6.5)
여 자	2,731 (100.0)	430 (15.7)	897 (32.8)	621 (22.7)	440 (16.1)	223 (8.2)	120 (4.4)

□ 고령자의 평소 슬픔이나 노여움에 대한 감정 표현 정도를 살펴보면 '잘 표현하는 편임'(30.8%), '그저 그런 편임'(24.4%), '표현하지 않는 편임'(17.9%) 순임

○ 슬픔이나 노여움에 대한 감정 표현을 잘 표현하는 남자 고령자는 50.7% 이고, 여자 고령자는 44.2%로 나타남

〈 표37 〉 슬픔, 노여움의 감정 표현별 고령자(2015)

(단위: 명, %)

	계	매우 잘 표현함	잘 표현하는 편임	그저 그런 편임	표현하지 않는 편임	전혀 표현하지 않음	미 상
전 체	3,159 (100.0)	451 (14.3)	974 (30.8)	770 (24.4)	564 (17.9)	252 (8.0)	148 (4.7)
남 자	428 (100.0)	79 (18.5)	138 (32.2)	89 (20.8)	74 (17.3)	20 (4.7)	28 (6.5)
여 자	2,731 (100.0)	372 (13.6)	836 (30.6)	681 (24.9)	490 (17.9)	232 (8.5)	120 (4.4)

장수 비결은 절제된 식습관, 규칙적인 생활, 낙천적인 성격 순임

4) 생활 만족도

□ 100세 이상 고령자가 현재의 삶(생활)에 대해 행복하다는 응답이 34.4%, 그저 그렇기 46.6%, 불행하다는 응답이 14.3%임

* 2015 사회조사 결과 65세 이상 주관적 만족감 : 만족함(21.8%), 보통(52.9%), 불만족(25.2%)

〈 표38 〉 생활 만족도별 고령자(2015)

(단위: 명, %)

	계	매우 행복함	행복한 편임	그저 그런 편임	불행한 편임	매우 불행함	미 상
전 체	3,159 (100.0)	181 (5.7)	907 (28.7)	1,472 (46.6)	362 (11.5)	89 (2.8)	148 (4.7)
남 자	428 (100.0)	42 (9.8)	148 (34.6)	168 (39.3)	34 (7.9)	8 (1.9)	28 (6.5)
여 자	2,731 (100.0)	139 (5.1)	759 (27.8)	1,304 (47.7)	328 (12.0)	81 (3.0)	120 (4.4)

5) 장수 비결

□ 고령자가 생각하는 장수 비결은 소식(小食) 등 절제된 식생활 습관이 39.4%로 가장 많고, 규칙적인 생활(18.8%), 낙천적인 성격(14.4%) 순임

〈 표39 〉 장수 비결별 고령자(2015)

(단위: 명, %)

	계	유전적 요 인	절제된 식습관	규칙적인 생 활	운동 등 건강관리	원만한 가족생활	낙천적인 성 격	기 타*	미 상
전 체	3,159 (100.0)	447 (14.2)	1,245 (39.4)	593 (18.8)	114 (3.6)	104 (3.3)	454 (14.4)	54 (1.7)	148 (4.7)
남 자	428 (100.0)	47 (11.0)	132 (30.8)	95 (22.2)	39 (9.1)	11 (2.6)	69 (16.1)	7 (1.6)	28 (6.5)
여 자	2,731 (100.0)	400 (14.6)	1,113 (40.8)	498 (18.2)	75 (2.7)	93 (3.4)	385 (14.1)	47 (1.7)	120 (4.4)

* 기타 : 보약 등 건강보조식품 복용, 신앙생활 등

〈 그림5 〉 고령자의 장수 비결(2015)



부록 | 조사 개요

조사 목적

- 100세 이상 고령자의 규모와 분포, 건강, 생활습관 등 실태를 파악하여 초고령 시대의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법적 근거

- 통계법 제5조의3 및 통계법 제17조 1항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01호, '15.10.5.개정)

조사기준 시점 및 조사 기간

- 조사기준 시점 : 2015년 11월 1일 0시 현재
- 조사 기간 : 2016. 3. 14. ~ 25.

조사 대상

- 조사기준 시점 현재 만 나이 100세 이상 고령자 전체

조사 방법

- 조사원이 고령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실시

조사 항목

- 31개 항목(고령자 기본실태 10개 및 생활실태 21개)

결과 공표

- 2016. 7. 25.